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조현숙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견고한 삶 (롬 8: 31-39)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끝까지의 사랑” (요한복음 13:1-15)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교회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 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 하나 씻겨 주신 사건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행하여야 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모습들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모습, 한숨과 한탄이 나오는 모습, 교만하고 인정 없는 모습이 가득하여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할 것이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유다는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은삼십에 팔아 자신을 죽이는 배신을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도망할 발들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입니다. 가장 비열하고 신의를 버리는 일을 할 것임을 알고서도 그 발을 씻겨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하시는 ‘끝까지의 사랑. 그럼에도’의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상대의 더러움, 상대의 부족함, 상대방의 약점, 실수와 나에게 준 상처까지도 덮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사람이 변했을 때 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순종하는 것이고 변화 시키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끝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결국 그들은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되어 교회의 일꾼이 되고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일 예배 점심** - 주일 예배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후 마무리 정리를 위한 자원자를 받습니다 게시판에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올려 주십시오.
4. **초원 모임** - 7월 25일 주일 예배 후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7/25	8/01	8/08	8/15
대표기도	조현숙	유영민	심영민	김영란
헌화성도	김크리스			조정옥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956.00	

행사 및 모임

6-8 월	야외예배	날짜미정 (주일)
9 월	교회창립 기념예배	9 월 5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힘이 생기는 원리

우리는 보통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힘든 일을 맡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자신이 힘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서 힘든 일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을 때 그 일을 충분히 해낼 만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힘든 일을 하기 시작하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힘든 일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보면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벼운 역기를 들기 시작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 자신이 들어올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몸에 힘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힘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을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점점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힘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맡은 일을 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놀랍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자신이 경험과 능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며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치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이 아닌 어떤 새로운 도전과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명령을 피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엇을 명령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힘든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한다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결국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해 봐야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